

「安全點檢」-이대로 좋은가?

點檢人들은 “안전점검 -이대로 좋은가?” 하는 內容의 질문을 종종 하게 된다. 協會의 將來 문제와 關聯하여 여러가지로 吟味할 수 있는 要素가 담겨진 물음으로 보인다. 이러한 疑問은 1973年 點檢業務 初期부터 있어 온 것인데 아직 똑같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달라진 게 있다면 그 당시 質問을 하던 사람이 이제 質問을 받는 立場이 되었다는 것이라고나 할까.

安全點檢結果를 指摘類型別로 整理하면 100 가지 패턴이 좀 못되는 정도이며 그것도 우리가 창작한 것은 거의 없고 모두 防災關聯法規에서 引用하여 使用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로 인한 民怨 惹起의 責任이 安全點檢으로 돌려지고 있음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罔연한 現實인 것이다.

우리들 點檢人은 安全點檢 즉 특수 건물에 대한 防災技術의 전파라는 제 1 차적인 사명을 받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 점검인의 뿌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협회가 설립되어 防災業務에 관한 한 不毛地나 다름없는 이 땅에 처음으로 安全點檢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 내려오고 있는데 초기에는 서울·부산지역에 局限되어 點檢人員도 보잘 것 없었으나 地域의 擴大, 新規物件의 증가, 업무의 확장 등으로 이제는 點檢 직원수의 수가 200 을 헤아리게 되었다.

점검 조장기의 그 어려웠던 주위 여건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보자.

예를 들어 火協의 安全點檢이 있기 以前에는 피난 계단을 5층 이상의층부터 設置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건축 認許可業務를 行하여 왔다고 관청의 건축 담당 직원이 실토하였듯이 그 어려운 상황을 뚫고 安全點檢이 成長한 것이다.

이제 외부적인 상황 변동으로 어려움이 닥쳐 우리들이 使命感을 잃는다면 그 동안 우리가 흘린 땀과 노력은 어디에서 補償받을 수 있겠는가?

최근에 와서는 特殊建物 所有者뿐만이 아니고 建物の 設計 施工 및 認許可 관계자도 點檢에 대한 認識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이 건축 건물에서 나타나고 있다.

200 명이 미처 안 되는 專門職 종사자로서 技術的인 면에서 國家防災業務를 이끌고 가다시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벅찬 일이라는 것을 點檢職員은 누구나 느끼고 있을 것이다.

하물며 世人들이 目前의 利益 추구에 급급하여 防火 문제를 度外視하고 있는 實情에 있어서라!

또 防火專門家나 防火專門機關이라고 내세우는 곳에서도 「防火」 그 자체보다 防火를 구실삼아 關係법의 비호 아래 영리 추구에 눈이 어두운 現實에서 點檢實務者의 고충을 당사자 외에 어느 누가 理解할 수 있을 것인가!

消防法 제 6條의 삭제로 인해 安全點檢業務가 萎縮될까 우려하였는데 協會 外部에서는 同條項의 삭제로 點檢業務가 크게 不便해지고 타격을 받기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看過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消防法 제 6條가 제정되기 以前에도 安全點檢은 遂行되었고 同條項이 삭제된 지금도 點檢業務는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安全點檢이 법률 第 2482 호에서 비롯되었으나 點檢業務 수행 10년이 지난 現在는 特別法이나 消

防法 제 6 조 등에 힘입어 進行되는 것이 아니고 點檢員의 努力과 經驗에 의해 遂行되고 있는 點을 注視하여야 한다.

現在 施行되고 있는 點檢에 問題點이 전연 없는 것은 아니다. 點檢員 누구도 現行의 安全點檢이 아주 理想的인 形態의 防火診斷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거의 굳어져 버린 듯한 職能別 分業 가운데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卑近한 예를 하나 들어 보자.

피난 기구 — 건축 담당, 소화기 — 화공 담당, 비상벨 — 전기 담당, 연결 송수관 — 기계 담당 등, 이러한 「작지움」이 건물에 대한 방화점검에 반드시 必要한 일이며 과연 點檢員의 專攻을 살리는 길인가?

이러한 우리 주변의 문제점은 우리 自身の 努力으로 스스로 解決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建物에 대한 安全點檢制度란 國內는 물론이고 先進外國에도 그 類例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獨特한 것이다.

따라서 點檢業務에 附隨되어 發生하는 問題點과 그에 대한 解決策도 前例가 없는 特異한 것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70年代의 급격한 經濟成長과 더불어 協會의 점검 업무도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協會 設立 10년간 安全點檢의 內實을 충분히 다질 겨를이 없이 外形의인 팽창과 實績 위주의 업무로 추진해 온 느낌이 있으나 돌이켜 보건대 어렴풋하나마 한 줄기의 발자취는 남겼다고 自負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지나간 10年 동안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는 安全點檢의 길잡이가 될만한 것은 별로 없다. 點檢業務에 새로이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는 解決의 先例를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우리 자신이 개척해야 될 뿐이다.

요즈음 協會 內外에서 관심이 일고 있는 위험 관리 제도(RISK MANAGEMENT)나 協會設立 初期부터 念願이었던 防災試驗所의 設立도 現行의 安全點檢을 바탕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열매인 것이니 점검 업무를 떠나서 存在하거나 點檢의 勞力을 밀거름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점검직원은 銘心해야 할 것이다.